

# “대~한민국 ... 코로나로 지친 국민에 위로와 희망을”



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홀에서 열린 2020 도쿄올림픽 대한민국 선수단 결단식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이기홍 대한체육회장을 비롯한 참가선수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도쿄올림픽 대한민국 선수단 결단식 ... 광주·전남 출신 누가 뛰나

- 근대5종 전용태
- 양궁 안산
- 배드민턴 안세영
- 복싱 임애지
- 펜싱 강영미
- 다이빙 권하림
- 사격 김모세·김보미
- 사이클 나아름
- 체조 양학선
- 핸드볼 원선필·강경민
- 골프 김세영

도쿄올림픽에 출전할 대한민국 선수단이 8일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결단식을 열었다. 대회가 보름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광주·전남 출신 주요 선수들의 면면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전용태(광주시)는 한국 근대5종에 사상 첫 올림픽 메달을 안길 후보다. 2021 국제근대5종연맹(UIPM) 월드컵 2차 대회 남자부 정상에 차지하는 등 도쿄 금메달이 유력한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안산(광주여대)은 대학 선배인 기보배(2012년 런던올림픽 2관왕)와 최미선(2016년 리우올림픽 금메달) 등 한국 여자 양궁의 계보를 이을 재목으로 꼽힌다.

안세영도 금메달이 기대되는 배드민턴의 유망주다. 광주체고 진학 후 3년 동안 태극마크를 달았던 안세영은 세계랭킹 8위로 일찌감치 올림픽 출전권을 확보했다. 한국 여자 복싱 사상 처음으로 올림픽 출전권을 따낸 임애지는 도쿄에서 여성 페더급(54-57kg)에 출전한다.

여자 펜싱 강영미(광주 서구청)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예매 개인전 금메달리스트다. 2021 카잔월드컵 대회에서 단체전 은, 개인 동메달을 획득한 베테랑이다. 권하림(광주시체육회)은 최근 일본 도쿄 아쿠

아틱스 센터에서 열린 2021 국제수영연맹(FINA) 다이빙 월드컵 나흘째 여자 10m 플랫폼 예선에서 10위에 올라 생애 처음으로 올림픽에 출전한다.

남자펜싱 사브르에 나서는 국민체육진흥공단 구본길과 김정환은 소속 팀이 전국체전에서 전남 대표로 뛰는 선수들이다. 사격 국가대표 선수단에는 전남대표 김모세(상무)와 김보미(IBK기업은행)가 포함돼 있다.

사격 김모세는 전남체고 출신으로 전국체전에서 전남 대표로 뛰고 있으며 김보미는 IBK기업은행의 연구지가 전남이다. 김모세는 지난 4월 치러진 올림픽 선발전 남자 10m 공기권총에서 총점 2908점을 쏘 사격항목 진중오(서울시청 2898점)를 누르고 1위를 차지했다. 김모세와 김보미는 신설된 공기권총 혼성단체전에도 나선다.

사이클 나아름(삼양사)은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최다 타이인 4관왕에 올랐고, 2019년에는 이탈리아 알레-치콜리니에 입단해 유럽 프로 투어 무대를 밝은 개척자다.

양학선(수원시청)은 2012년 런던올림픽 도마에서 한국 체조 사상 최초로 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한 베테랑이다. 9년 만에 두 번째 금메달에 도전하는 양학선은 오른쪽 허벅지 햄스트링 탓에 '조건부'로 뽑혔다. 양학선은 이번 대회 도마 경쟁자들과 같은 난도 6.0점과 5.6점 짜리 기술을 펼친다. 금메달을 놓고 경쟁할 최다 라이벌은 아시안게임을 2회 연속 제패한 홍콩의 쉐와이홍이다.

광주도시공사 원선필과 강경민은 여자핸드볼에서 메달을 노린다. 2014인천아시안게임 금메달 멤버인 원선필은 2019년 올림픽예선 이후 2년 만에 국가대표에 복귀했고, 강경민은 생애 처음으로 태극마크를 달았다.

영암 출신 프로골퍼 김세영은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이어 2회 연속 출전해 메달을 노린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복싱 임애지 선수

## 김재무 전남도체육회장, 지원 단장으로 참가

김재무 전남도체육회장이 2020 도쿄하계올림픽대회 지원 단장으로 대회에 참가한다.

김 회장은 8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2020 제32회 도쿄하계올림픽대회 대한민국선수단 결단식에 참석, 결의를 다졌다.

김재무 회장은 이날 전남도 소속으로 올림픽에 참가하는 럭비 박완용(한국전력공사), 펜싱 김정환(국민체육진흥공단) 선수를 직접 격려하고 전남의 명예를 드높여줄 것을 응원했다.

김재무 전남도체육회장은 "대한민국 선수단 지원단장으로 선임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면서 "그 직책에 맞게 책임감을 갖고 대한민국 선수단을 면밀히 챙겨, 반드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김재무(가운데) 전남도체육회장이 8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도쿄하계올림픽 대한민국선수단 결단식에 앞서 전남도 소속으로 대회에 출전하는 박완용(럭비·한국전력공사, 왼쪽), 김정환(펜싱·국민체육진흥공단)과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8일 영국 런던의 웬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0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 2020) 4강전 잉글랜드 대 덴마크의 경기에서 결승 골을 넣은 잉글랜드의 해리 케인이 동료들과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축구종가’ 잉글랜드, 사상 첫 유로 결승

### 연장 혈투 덴마크에 2-1 역전승 12일 이탈리아와 대결

사상 첫 유럽축구선수권대회 우승에 도전하는 ‘축구종가’ 잉글랜드가 연장 혈투 끝에 돌풍의 덴마크에 역전승을 거두고 처음으로 결승에 올랐다.

잉글랜드는 53년 만의 우승에 도전하는 이탈리아와 결승에서 맞붙는다.

잉글랜드는 8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웬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0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 2020) 4강전에서 덴마크와 1-1로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연장전에서 나온 해리 케인의 페널티킥 결승골을 앞세워 2-1로 이겼다.

유럽에서도 강호인 잉글랜드는 1960년 첫 대회부터 60년 넘게 한 번도 유로 우승을 하지 못했다. 자국에서 열린 1996년 대회에서도 우승하지 못했고, 1996년 대회와 1968년 이탈리아 대회에서 4강에 오른 게 그간 최고 성적이었다.

조별리그 1차전에서 팀 핵심인 공격형 미드필더 크리스티안 에릭센이 심정지로 쓰러지는 아픔을 겪었던 덴마크는 이후 더욱 폭발 무적 4강까지 올랐으나, 1992년 대회 우승의 영광을 재현해내지는 못했다.

잉글랜드는 준결승에서 승부차기 끝에 스페인

을 꺾고 A매치 33경기 무패 행진을 달리며 올라온 이탈리아와 12일 오전 4시 웬블리에서 우승컵을 놓고 맞대결한다.

‘축구 성지’ 웬블리에서 잉글랜드가 출전하는 유로 결승전이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전반 30분 덴마크가 먼저 앞서나갔다. 미켈 달스고르가 페널티킥 왼쪽에서 얻은 프리킥 기회에서 잉글랜드 수비벽을 넘어 득점하는 슈팅으로 선제골을 뽑았다.

곧바로 공세를 펼치던 잉글랜드는 상대 자책골로 승부의 균형을 맞췄다.

전반 39분 케인의 침투 패스에 이어 오른쪽에서 부카요 사카가 넘김 킥백이 덴마크 수비수 시몬 키에르의 몸을 맞고 골문으로 향했다.

기세가 오른 잉글랜드는 역전골을 노렸으나, 덴마크 골키퍼 카스페르 슈마이켈의 선방에 슈팅이 번번이 막혔다.

결국 승부가 연장으로 넘어간 가운데, 케인이 역전 결승골을 책임졌다.

연장 전반 막판에 라힘 스틸링이 페널티지역 오른쪽을 파고들다 요하킴 메를레에게 걸려 넘어졌다. 비디오판독(VAR) 결과 메를레의 파울이 선연대 잉글랜드에 페널티킥(PK)이 주어졌다.

키커로 나선 케인은 첫 슈팅이 슈마이켈에게 막히자 제2 슈팅에 귀중한 결승 득점을 올렸다.

/연합뉴스